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8. 3. 12.(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성호, 사무관 김보민, 주무관 김형민 ☎ (044) 201-3519, 3523	
	수자원산업팀		·팀장 김철기, 사무관 박상우, 주무관 유소영 ☎ (044) 201-3637, 3641	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3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손병석 차관, 중남미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위한 현지 외교 파나마·페루·브라질 방문...스마트시티·도시철도·수자원 분야 협력 확대

-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3월 15일(목)부터 21일(수)까지 파나마·페루·브라질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·교통·수자원 등 인프라 분야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한다.
- 올해 중남미 건설시장은 전체 세계 건설시장의 6% 수준인 6,500억 달러 규모이나, 우리나라의 수주 규모는 약 6억 달러로 향후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신시장이다.
 - 국토부는 이번 출장으로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(21억 달러), 페루 리마 도시철도 3호선(50억 달러) 등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주를 지원한다.
 - 아울러 페루 교통통신부와 스마트시티 양해각서를 신규 체결하며, 수자원 전담부처인 농업관개부와 수자원 양해각서를 갱신한다.
 - 또한 19일(월)부터 20일(화)까지는 브라질리아에서 3년 주기의 세계 최대 물 관련 행사인 제8차 세계 물 포럼에 참석,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·중·일 수자원 장관회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.

< 국가별 주요 일정 >

1. 파나마(3. 15.): 공공사업부·메트로공사 면담, 진출 기업 간담회
2. 페루(3. 15.~16.): 교통통신부·주택건설부·농업관개부(수자원청) 면담, 기업 간담회
3. 브라질(3. 17.~20.): 제8차 세계 물 포럼 참석, 한중일 수자원 장관 회의 참석

중미의 강소국, 운하의 나라 '파나마'

중미 최초의 도시철도 1호선 완공(2014년에 이어 2호선(건설 중), 3호선(입찰 준비 중) 건설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교통 기능 향상 기대

- 파나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(GCI)'에서 인프라 부문 중남미 내 2위(1위는 칠레)를 기록하는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.
- 그러나 수도인 파나마시티는 전체 인구(약 400만 명)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고, 주거지인 서부지역과 도심 간 교통량 급증으로 대기오염과 교통 정체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다.
- 국토부는 '16년 6월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식 대통령 특사 파견 등 파나마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, '17년 1월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중미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.
- 금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스마트시티 개발과 '엘 니뇨' 기후변화 저감에 노력하는 '페루'

중남미 최대 경제성장률(4%) 아래 재해예방 스마트시티 건설에 박차

- 페루는 국제통화기금(IMF)에서 발표하는 중남미 경제성장률 중 가장 높은 4%를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나,
- 지난해 엘니뇨*에 따른 집중 호우와 홍수로 페루 국내총생산(GDP)의 5%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저감이 절실한 국가다.
- * 페루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현상으로,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.4도 이상 상승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함. 강할 경우 홍수 발생
- 따라서 국토부는 페루의 통합 물 관리를 위해 이번 농업관계부 차관(수자원)과의 수자원 양해각서 갱신과 함께,
 - '14년 국토부 공적개발원조(ODA)사업인 '페루 리막강 수자원 종합 기본계획'의 후속 '18~'20 '페루 리막강 통합물관리 사업'을 추진한다.

- 또한 국토부는 도시화율이 80%에 달하며, 연간 도시성장률이 1.6% 대인 페루에 이번 출장을 통해 스마트시티 양해각서를 신규로 체결하고,
 - 주택건설부 차관, 부동산등기청 청장, 교통통신부 차관 등과 협력 회의를 연달아 열어, 페루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한다.
 - 아울러 페루의 2대 도시인 아레끼파에 '18년 국토부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으로 스마트교통(지능형 교통체계 ITS)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, '15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주개발은행(IDB)와의 공동사업도 모색 중이다.

제8차 브라질 세계물포럼에서 함께하는 물 관리

제7차 세계 물 포럼(대구, 2015) 개최국으로 한국의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파

- 손병석 차관은 페루에 이어 19일(월)~20(화)까지는 브라질리아를 방문, 제8차 세계 물 포럼과 한·중·일 수자원장관회의에 참석한다.
 -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물 포럼은 물 관련 국제 행사 중 최대 규모로, 지난 제7차 물 포럼은 우리나라 대구·경북에서 열렸다.
 - * 전 행사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중앙부처(국토·환경·외교), 지자체(대구·경북), 공공기관(한국수자원공사, 농촌공사, 환경공단 등),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표단(단장 : 국무총리)을 파견
- 손 차관은 “이번 출장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스마트시티·교통·물 관리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, 이를 계기로 건설 분야 신시장인 중남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인프라 협력 대표단 파견으로 '15년 브라질 건설기업의 부패 스캔들 이후 재편되고 있는 중남미 건설 시장 진출에 봄별이 들기를 바란다.”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보민 사무관·수자원정책팀 박상우 사무관 (☎ 044-201-3519,36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